

2 0 1 0
SUMMER
V o l . 2 3

세계 초우량 기업을	COVER STORY	06
향해가는 원익그룹	DREAM SECTION	15
원익인이 함께하는 사보	CHALLENGE SECTION	25
	PASSION SECTION	33
	LIFE STORY	46

원익인



Challenge & Passion

挑戰

+

熱情

변화를 주도하며, 열린 사고와 세계화된 기업가치관으로 세계 속의 초우량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루자.



원익그룹사보 2010년 여름호 원익사 통권 23호 발행인 임창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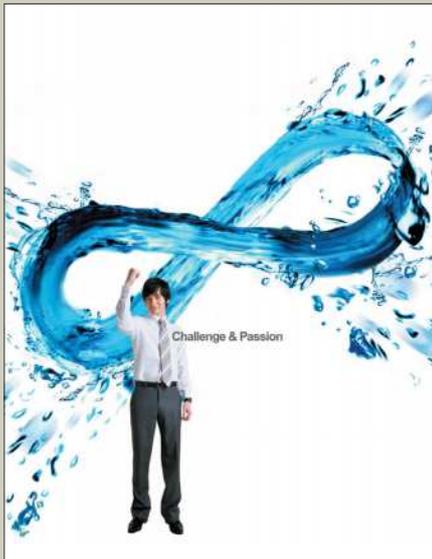
발행일 2010년 7월

발행처 원익그룹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사보 '원익사'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VER STORY

06 Cover story 도전하는 인재, 성공하는 기업

08 CEO Column 하나 되어 이루는 기업문화, 더 큰 힘 발휘한다

10 Wonik News 원익그룹 계열사 소식

2010
SUMMER Vol. 23

원익인

CONTENTS



세 계 초 우 량 기 업 을
향 해 가 는 원 익 그 룹
원 익 인 이 함 께 하 는 사 보

COVER STORY

- 06 Cover Story 도전하는 인재, 성공하는 기업
- 08 CEO Column 하나 되어 이루는 기업문화, 더 큰 힘 발휘한다
- 10 Wonik News 원익그룹 계열사 소식

D R E A M

- 16 Special Edition 2010년 상반기 그룹 교육 실시
- 18 Power of Wonik Technique 질화계가스·고차 실란가스·SF6 대체물질 등 개발 박차
특화된 기술력으로 경쟁력 높일 것
- 21 Wonik Dissertation 이온성 액체(Ionic Liquid)

C H A L L E N G E

- 26 Wonik's Dream Team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 우리는 최강 생산팀!
- 28 Never ending challenge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 JAL의 구원투수가 되다
- 30 Self Innovation Note 革新은 하나의 習慣이고 文化

P A S S I O N

- 34 Zoom in 스트레스는 날리고, 실력은 키우고, 친목은 다진다!!
- 36 Positive Energy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유쾌! 상쾌! 통쾌!
불링, 바로 이 맛 아닙니까?
- 38 Scene of Welfare Service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우리가 감싸줘야죠”
- 40 Talk Box 원익인이 말한다! 멋진 상사유형 Best

L I F E S T O R Y

- 46 Economic Report 도요타의 추락 그리고 부활 의지에서 배운다
- 48 Book 오리진이 되라
- 49 Exhibition 2010 테오안선 展
- 50 Health 여름철 건강관리

08 CEO COLUMN

하나 되어 이루는 기업문화,
더 큰 힘 발휘한다



16

SPECIAL EDITION

2010년 상반기
그룹 교육
실시



30

SELF
INNOVATION NOTE

革新은
하나의 習慣이고
文化



34



ZOOM IN

스트레스는 날리고,
실력은 키우고,
친목은 다진다!!

49

EXHIBITION

2010 테오얀센 展



도전하는 인재, 성공하는 기업

뜨거운 열정으로 더 큰 세상에 도전하라

1960년까지도 사람들은 ‘달’을 인간이 오를 수 없는 곳이라 여겼다.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이렇게 말했다.

“더 큰 세상을 탐험할 것이다.”

1491년, 스페인령 지브랄타 해역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지구는 여기서 끝난다.(No More Ahead)’

1492년, 콜럼버스는 그곳을 건너며 이렇게 말했다.

“더 큰 세상을 발견할 것이다.(More Ahead)”

지난해 모기업이 선보였던 기업PR광고의 카피문구다. 광고에 서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로 인하여 세상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물론 사회 어느 영역에서나 ‘더 큰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로 글로벌 IT업체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애플. 자기 직업에서 혁신을 지향하는 성향이 짙은 인재를 두고, 이른바 ‘애플형 인재’라는 말까지 나왔다. **애플형 인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일상화된 인재다.** 남이 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지 못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지적영토를 확대해나가고, 기회를 성공의 모



태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다.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공동으로 창업했고, 애플의 초기 컴퓨터 제품 개발을 주도했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지난 7월 8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서울포럼'에 참가해 '도전과 열정'의 정신이 애플을 성공으로 이끌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우리는 애플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맥은 너무 비쌌고, 시대흐름을 너무 앞서갔다. 80%에 이르던 시장 점유율은 점점 떨어져 7%가 됐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특별한 제품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에겐 열정이 있었다"고 애플 창업 초기를 회상했다.

워즈니악은 "열정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애플은 시장을 빼앗기고 문을 닫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왔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인생의 메달은 삶의 매순간에 달려 있는 법. 일곱 번 쓰러지고도 여덟 번 도전하는 자체가 이미 승리이며,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인재만이 성공의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만이 성공한다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해 진취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은 결국 승리를 맞는다. 국내에서도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지난 10년 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변신에 도전했던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성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불안하던 기업이 금융위기에 서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변화를 주저하지 않은 도전의식과 열정에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매출이 최대 수십 배 늘어나는 외형적 성장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더욱 탄탄한 기업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기업 스스로 열정을 갖고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CEO가 '도전'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CEO는 실패에도 관대해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실패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보여야 하는 것 또한 CEO의 역할이다. 그래야 구성원들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일이나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즉 도전정신이다.**

또 기업 내부적으로도 조직개편, 혁신적인 기업문화 도입 등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스스로 변화하는 기업, 원익

2010년 원익그룹은 도전과 열정의 기업문화 핵심가치 실천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힘찬 모습이다.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로부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열사 CEO 및 경영지원본부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먼저 실천의지를 보이고 솔선수범해야한다"고 천명했다. 각 계열사 임직원들도 "위로부터 개혁의지"를 갖고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원익그룹은 구성원들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직원 및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구성원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 업무의 변화를 시작으로 도전을 실천하고 있다.

사소한 도전과 실행이 나중에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21세기 무한 가능성의 시대에 원익그룹은 **원익인 개개인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으로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열린 사고와 세계화 된 기업가치관으로 자기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익그룹은 "세계 속의 초우량기업 원익"으로의 성장의 꿈을 하루하루 앞당기고 있다.

하나 되어 이루는 기업문화, 더 큰 힘 발휘한다

어떤 기업의 좋은 정책이나 제도는 쉽게 흉내 낼 수 있겠지만, 그 뒤에 흐르는 정신까지 베끼기란 어렵다. 기업문화는 오랜 세월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구축된 그 회사만의 독특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힘도 바로 기업문화다.

신원종합개발(주) **정원단** 대표이사



“기업문화의 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타납니다. 위기 때 직원들을 보면 기업문화가 더 잘 드러나는 법이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신발 끈을 다시 묶고 땀뿜 뭉쳐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라면 기업문화가 살아 숨 쉬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원들 각자마다 애사심과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기업문화야말로 기업의 힘입니다.”

신원종합개발(주) 정원단 대표는 기업문화란 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돋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업문화란 보이지 않는 추진력으로써 직원들에게 목표와 열정을 불어넣으며,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최대자산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문화는 단순히 슬로건이나 구호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신뢰,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때 전 임직원의 가치가 모여 형성되는 것이죠.”

CEO부터 솔선수범하는 열린 기업문화 조성

기업문화 조성에 있어 CEO의 역할은 다른 누구의 역할보다 중요하다. 근 30여 년 간 건설업계에 몸 담아 온 정원단 대표는 “건물이 공사 없이 도면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기업문화도 실천이 없이는 안 된다”고 힘줘 말한다. 기업문화 실천에 있어서도 CEO가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해야한다는 말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낮은 자세로 직원들의 작은 성공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고, 또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직원 모두가 직위에 관계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CEO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탑 다운·바텀 업 병행해 기업문화 공감대 형성

또 정원단 대표는 “한 기업이 ‘기업문화’라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밑바탕이 되어야한다”고 덧붙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직원들 간의 소통이 필수적. 소통은 이해와 신뢰를 가져오지만, 소통하지 않으면 몰이해와 불신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업문화지요. CEO가 기업문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국 만들어가는 것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탑 다운(top-down)이 되어서, 때로는 바텀 업(bottom-up)이 되어서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원종합개발(주), 신뢰와 존경의 기업문화 만들 것

현재 신원종합개발(주)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직원의 공동체 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전직원이 함께 하는 봄 산행을 시작으로 기업문화 강화에 나선 신원종합개발(주)은 ‘PEON(Please Everybody, Offend Nobody)’ 캠페인, 동료칭찬하기 프로그램, 생일축하 프로그램, CCO 주관 월요 점심 데이트 등을 통해 기업문화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자매결연을 통한 소녀·소녀가장 후원활동에도 전직원이 참여해 정을 나누고 있다. 또 ‘개인별 업무목표 및 평가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



다. 특히 매달 권장도서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는 독서프로그램은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원단 대표는 “새로운 기업문화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마침 그룹 차원에서 기업문화 강화를 추진하고 나서줘 순풍에 돛 단 듯 힘이 난다”면서 “옛것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접목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업, 창조성과 미래 지향적 사고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기업으로 새롭게 성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글 정창욱 · 사진 조인기

WONIK NEWS

(주)원익

임직원 청계산(淸溪山) 등반



지난 5월 7일 (주)원익 구자규 사장 이하 전 임직원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청계산(淸溪山)에 올랐다. 총 5개 조로 나뉜 직원들은 각 팀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서로서로 격려하고, 도와 목적지인 옥녀봉(玉女峰)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One Team' 의식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한껏 충전했다. 하산 후 시원한 막걸리로 땀을 식힌 전 임직원은 'I love WONIK, we ALL love WONIK'의 2010년도 경영 슬로건의 실천을 다짐하며 즐거운 등반의 뒤풀이를 이어갔다.

메디칼 부문 2010 전국 파트너 워크샵



지난 7월 2일과 3일 이틀간 무주리조트에서는 (주)원익 메디칼부문의

[2010 원익 파트너 워크샵]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은 외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주)원익 구자규 사장과 메디칼부문 임직원들은 메디힐스와 15개 대리점과 함께 일반 교육 및 신제품 교육,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공급사와 대리점 간 상생(Win-Win)관계 구축을 다짐했다. 첫째 날 워크숍은 교육조와 토론조로 나뉘어 각각 진행됐다. 메디칼 1팀에서는 'PENTAX New product' 등의 제품 관련

교육, 메디컬 3팀에서는 'Laser 기초' 등의 전문 지식 교육이 이뤄졌고, 토론조에서는 'Market Situation & 10상반기 Review' 등의 시장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Zeltiq, Thermage CPT' 등의 신제품 교육이 진행돼 서로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대리점 우수교육자에 대한 시상에서 NS 메디칼은 우수대리점에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구자규 사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급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Win-Win)관계 구축이 결국 고객에 주는 신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메디칼 부문 2010 All Employee Meeting 개최

지난 7월 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주)원익의 2010년 두 번째 All Employee Meeting이 진행됐다. 전



임직원은 이번 미팅을 통해 상반기의 경영 성과를 돌아보고 하반기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미팅에서는 (주)원익의 교육운영방향에 대해 모든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구자규 사장은 "전사적, 계층별, 직무별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답변으로 미팅은 진행 내내 활기를 띠었고, 구자규 사장 이하 전 임직원은 201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음 가짐을 새롭게 했다.

(주)원익퀴츠

원익나눔회 '어린이날 기념 그림 공모전, 행사 시행



(주)원익퀴츠 사회봉사단인 원익나눔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구미시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예술적 소질을 개발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매년 5월이 되면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편의시설, 자원봉사자 등의 부족으로 어린이날 행사 참석조차 어려운 현실을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원익퀴츠가 장애, 비장애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인간으로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고취하는 어린이날의 정신을 되새기며 장애 어린이가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그림 공모전은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작품접수를 하여, 우수작품 20점을 선정하여 5월 4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이후 한달간 구미시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작품전시회를 열어 지역시민들이 복지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봉사단은 앞으로도 사랑의 집고쳐주기, 농촌일손돕기, 헌혈캠페인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주)원익퀴츠 사회봉사단의 이형길단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 홍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대표이사배 사내 족구대회 개최



(주)원익쿼츠에서는 “2010년 대표이사 부회장배 사내 족구대회”가 4월 19일부터 5월 31 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구미공장 복지관 족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개최하여 사원들의 단합과 사기 양양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구미공장을 13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를 편성, 15점 3세트, 더블 옐리미네이션 제도로 운영하여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특히 이번 족구대회를 통해 많은 사원들이 경기를 즐기면서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대회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승자전 우승은 벤치B팀, 준우승에 세라믹팀, 응원 우승팀은 LAM팀, 베스트 스타상에 임용철, 최우수 수비수에 정호경, 그리고 포토제닉상은 김재홍대리가 수상했다.

임직원 월드컵 단체 응원

(주)원익쿼츠에서는 지난 월드컵기간에 구미공장 복지관에서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한 바비큐파티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월드컵을 강당의 대형터비로 시청하면



서 바비큐로 직원들간의 소통을 위한 이벤트나 축제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 도모와 유대감을 갖자는 취지로 준비하여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 양양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직원들이 둘러 모여 축구 얘기로 월드컵 열기를 한층 돋구었으며, 한국은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금지탑을 쌓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망좋은 복지동 강당에서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바비큐가 익어가는 가운데 월드컵 시청과 HOF 한잔에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 버리는 멋진 이벤트 행사로 진행되었다.

원익축구회 전국풋살 대회 3위 입상



(주)원익쿼츠 축구 동호회는 지난 6월 6일 구미시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 국민생활 체육 동호인 풋살대회”에 참가하여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활기찬 젊음의 도시 구미에서 풋살의 저변확대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미시가 주최한 대회로 이날 (주)원익축구회회원은 회원 및 직원가족등 참여 하여 절정의 기량을 뽐내었다.

특히 (주)원익쿼츠 축구 동우회는 매년 대회 4회이상의 대회 참여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풋살은 가로 20m, 세로 40m의 작은 경기장에서 가로 3m, 세로 2m의 골문에 공을 차 넣는 경기로 미니 축구로 불린다.

5명이 한 팀을 구성하며 배구장만한 공간에서 펼쳐기 때문에 속도감이 빠르다. 빠른 순발력과 판단력,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며 심한 태클이나 슬라이딩은 금지된다. 축구회의 이런 풋살 대회참자가 직원단합과 일체감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일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신원종합개발(주)

독서 권장 프로그램 실시

신원종합개발(주)은 지난 5월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권장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추천도서 공지 후 회사 홈페이지 도서방에 독후감을 올린 임직원을 선정해 각종 문화공연 티켓을 지급해 독서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부터 많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독서하고, 독후감을 게시판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임직원들은 독후감 공유를 통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각에 대한 상호존중심을 배양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신원종합개발(주)은 앞으로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독서 권장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시대 다원주의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주)아이피에스

2010년 하반기

(주)아이피에스/주)아토 공채 신규사원 연수 실시



2010년 하반기 공채 신규입사자들에 대한 연수가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3박4일간 용인시 퓨처 리더십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주)아이피에스 신규입사자 26명, (주)아토 신규입사자 26명이 참석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선배사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회사의 비전과 조직문화 전파를 통한 소속감 및 자부심을 형성하고 사회인으로서의 가치관 형성 및 직장에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였다. 또한 동료간 공동체 의식 및 조화로운 인간관계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주)아이피에스

경영지원본부 신규입사자 오리엔테이션 교육 실시



(주)아이피에스 경영지원본부 신규사원의 각 사업부 순회 오리엔테이션을 7월 5일과 6일 2일간 진행되었다.

현 (주)아이피에스 각 사업본부는 2010년 글로벌 기

업으로의 성장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각 사업본부를 원활하게 지원/운영하기 위하여 경영지원본부의 신규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신규 사원의 각 사업본부의 업무수행의 이해를 돕고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각 사업본부별 순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아이피에스/㈜아토 사우회 친선 축구

지난 6월 30일 (주)아이피에스와 (주)아토 양사 사우회의 주관하에 양사의 사우회 교류 및 친선을 도모를



위한 친선축구경기가 평택시 합정레포츠 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경기를 계기로 양사간 교류 및 친선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것임을 서로 약속하였다.

(주)아토

휴게 공간 신설

(주)아토는 2010년 5월 20일, 아토인을 위한 멀티 휴식공간인 "아울림"을 개장하였다.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개장한 "아울림"은 "아토+어울림"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날 개장행사에는 문상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으며 이후 점심시간에는 임직원이 어울린 야외식사를 갖기도 했다.

탁구대 및 보드게임, 장기, 다트 등 다양한 놀이 도구와 함께 케이블TV, PC 및 100여권이 넘는 신간



서적을 구비한 "아울림"은 업무에 대한 높은 열정을 가진 아토인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부족함이 없으며 업무능률의 향상에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초청설명회 개최

(주)아토는 우수 인적자원 조기 확보의 일환으로 성균



관대 반도체관련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5월 26일 초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약 35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회사 및 제품 소개를 시작으로 현장에서의 실무에 관한 강의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신인사평가시스템 WORK SHOP 개최



지난 5월 28일 충북테크노파크 소회의실에서 (주)원익

머트리얼즈 "신인사평가시스템" WORK SHOP이 진행되었다. 이번 WORK SHOP을 통해 "신인사평가시스템"은 정당한 평가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직원의 시너지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함께 했다. 현재 개발 진행중인 "신인사평가시스템"은 각자의 업무수행을 통한 기여도를 측정하여 차별적인

보상과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성과증대 등의 여러 목적으로의 활용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앞으로 사용자와 담당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되는 interactive 시스템으로써, 사원 개개인에 대한 HR 서비스 강화,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 환경 제공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임직원 청계산(淸溪山) 등반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주) 원익머트리얼즈의 간부(임원 및 팀장)들이 Performance Climbing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이들은 함께 하는 청계산 등반을 통해 다시 한번 공통의 목표를 되새기고 결의를 다지며 앞으로의 힘찬 전진을 다짐했다. 전진을 위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 이 날 등반을 통한 체력증진으로 모두가 더욱 건강해지고 활기차진 모습속에서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해본다. 이준열 대표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과의 등반을 통해 (주)원익머트리얼즈의 목표를 되새기고 함께 소통하는 좋은 기회를 계속 가질 것이며, 이러한 단합과 열린 소통은 곧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위닉스

편편 단합대회 실시



(주)위닉스는 5월 28일 2010년도 편편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통통커뮤니케이션'이라는 외부교육을 병행하며 활기차고 즐거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밝은 조직문화형성에 한걸음 더 내딛었다.

또한 단합대회중 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임직원 모두 참여하여 협동심과 자긍심을 가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전 직원이 참여한 줄다리기는 모두의 하나된 힘을 보여 주었다.

직원 간에 자유롭고 편안한 대화의 시간을 주어 서로간의 더 깊은 이해와 동료애 고취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디비코(주)

'티빅스 슬림S1' 론칭에 앞서 예약 보상판매 진행

- 12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간 티빅스 고객대상 예약 보상판매
- 총 수량 300대, 모델 별로 최대 10만원에서 최소 5만원까지 보상
- 프리미엄 '티빅스 슬림S1'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 됨

멀티미디어 기기를 선도하는 디비코(주)(대표 이지웅, www.tvix.co.kr)는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총 8일간 티빅스(디비코 및 타회사 포함)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판매는 디비코(주)가 프리미엄 '티빅스 슬림S1'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티빅스 고객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서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비코 티빅스 제품(최근 출시된 티빅스 카페, 8635 모델 제외) 및 경쟁회사 제품을 반납하면 '티빅스 슬림S1' 또는 '티빅스 PRV M-6620 DUO'로 교체해 준다. 총 수량은 300대이며, 디비코 제품의 보상금액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모델 별로 최대 10만원에서 최소 6만원까지 보상에 준다. 타 회사 제품은 모두 5만원을 보상에 준다.

이번 보상판매와 관련된 내용은 디비코(주) 보상판매 홈페이지(www.tvix.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문 결제와 함께 기존의 티빅스를 반납하면 보상판매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또한 보상판매 행사와 함께 메인화면 사용자 정의 기능을 이용한 '티빅스 바탕 화면 뽐내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디비코(주)가 야심 차게 준비해온 '티빅스 슬림S1'은 국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티빅스 HD M6620N'의 주요 기능에 컴포넌트 출력력을 보장하여 출시되는 제품으로서 성능대비 가격은 저렴해지고, 크기는 슬림해졌다.

1080p의 비디오 출력 및 차세대 HD오디오 출력

가능한 ▲HDMI 1.3 및 HD오디오 지원, 줄거리가 포함된 영화의 이미지와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이용한 ▲커버아트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TV나 디스플레이 장치를 켜지 않고도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PC)에서 TVIX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웹리모트 기능 지원, ▲원클릭 HDD 교환 기능,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e-SATA 단자와 USB호스트 단자를 통한 외장 ODD 지원, ▲무손실 음악 파일 지원(WAV/FLAC/APE), ▲풀 HD H.264 1080P/24Hz 재생 지원, ▲802.11N 무선랜 모듈 옵션 등을 지원한다. 제품가격은 24만 5000원이다.



디비코(주)의 최희덕 부장은 "이번 티빅스 보상판매는 디비코(주)가 그동안 야심 차게 준비해온 '티빅스 슬림S1'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신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다"라고 말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임직원 월드컵 단체 응원

지난 6월 17일 '2010 월드컵' 한국 : 아르헨티나 전의 응원을 위해 원익투자파트너스(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응원전은 기업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임직원 전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며 함께 울고 웃는 따뜻한 자리였다. 결과는 한국의 패였으나 함께 응원을 하면서



원익투자파트너스(주) 가족들간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단합을 갖는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나라는 결국 8강에 진출 하지 못했지만 원정 첫 16강이라는 과업을 이루어 냈고, 이것은 아마도 아르헨티나 전을 통해 얻은 교훈이 발판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원익투자파트너스(주)도 눈앞에 직면한 어려움이나 좌절이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기회가 될 것을 다짐 해본다.

회사별 주요 일정

(주)원익

- ① All Employee Meeting 실시 (7월),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전략 공유
- ② 임직원 정기 종합 건강검진 실시 (7월, 8월)

(주)원익쿼츠

- ① 2010년 i-SEDEX 전시회 참가 및 준비 (9월, 10월)
- ② 사회봉사단 "원익나눔회" 사랑의 헌혈 및 집고쳐주기 행사 참여 (7월, 9월)
- ③ 원익쿼츠 제 2공장 증축 및 준공 (8월), 석영사업부 제 2공장 증축

신원종합개발(주)

- ① 하반기 무재해 달성 기원 안전 워크샵 실시 (7월)
- ② 경영실적 보고 경영회의 실시 (7월, 8월, 9월), 상반기 실적 점검 및 하반기 계획

(주)아이피에스

- ① SEMICON Taiwan 2010 참가 (9월)
- ② 2010년 i-SEDEX 전시회 참가 및 준비 (9월, 10월)
- ③ 기업문화 활동 "전직원 참여 한마음 행사" (9월)

(주)아토

- ① SEMICON Taiwan 2010 참가 (9월)
- ② 2010년 i-SEDEX 전시회 참가 및 준비 (9월, 10월)
- ③ 사회 봉사활동 실시 (7월), 독거노인 여름나기 보양식 지원

(주)원익머트리얼즈

- ①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회 (7월), 전임직원 실적 공유
- ② 사회봉사 활동 실시 (8월), 지역사회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주)위닉스

- ① 부품사업부 상반기 단합대회 행사 (7월), 부품사업부 전임직원 참여
- ② 한울사랑회 봉사활동 실시 (7월), 한우리 정보문화 센터 경로식당

디비코(주)

- ① 신제품 출시 예정, 프리미엄 제품 "티빅스 슬림 S1" (8월)

원익투자파트너스(주)

- ① 글로벌 투자과제 선정기업 IR 및 대전충남권 벤처투자 로드쇼 참석 (7월)
- ② 가족동반 전임직원 박물관 관람 행사 및 사내 독서 토론회 (7월)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CHALLENGE · PASSION

SECTION 01 Dream



16 Special Edition
원익그룹교육
2010년 상반기 그룹 교육 실시

18 Power of Wonik Technique
㈜원익머트리얼즈 개발팀 김대현 부장 외 직원
집화계가스 · 고차 실란가스 · SF6 대체물질 등 개발 박차 ... 특화된 기술력으로 경쟁력 높일 것

21 Wonik Dissertation
이온성 액체
Ionic Liquid

2010년 상반기 그룹 교육 실시

신규입사자 과정, CEO 및 임원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등 4개 과정 실시



2010년도 그룹교육 과정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2009년도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위기에 강한 기업으로 변화' 하는데 필요한 경영의 핵심요소 및 임원/팀장으로서의 리더십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창의/도전열정/공정투명'의 그룹 기업문화를 깊이 인식하고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상반기 실시된 그룹차원의 임/직원 교육과정으로 신규입사자 과정을 비롯하여 각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CEO 및 임원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등 총 4개 과정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숲속의 아침 펜션에서 실시 되었다. 4월 20일, 27일, 2주간에 걸쳐 실시된 신규입사자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2010년도 그룹교육은 상반기 총 4개 과정이

실시 되었으며, CEO 및 임원을 포함해 총 120 여명의 계열사 임직원이 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실시된 모든 교육과정에는 그룹회장 특강시간 및 기업문화 전파 과정을 편성하여, 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교육장을 방문하여 모든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직접 특강을 실

시하였으며, 2010년도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기업문화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 되었다. 모든 교육과정에 올해 강조하고 있는 그룹 기업문화 핵심 요소인 '창의/도전열정/공정투명'의 내용을 연계하여 창의적 혁신의 실천, 프로정신 및 도전정신, 공정 투명한 조직문화 건설을 위한 실천 항목 등을 포함하였다.



신규입사자 과정

4월 20일부터 3박 4일, 4월 27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신규입사자 과정에는 2009년도에 입사한 각 계열사의 사원, 대리급 직원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그룹의 핵심가치인 '창의/도전열정/공정투명'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심화시키고, 원익인으로서의 기본자질,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기본 스킬 향상, 그룹 문화의 이해 및 팀워크 형성을 위한 산악 목표달성훈련(Outdoor Activity),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Communication 전략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각 계열사 직원들간의 인적 Network 형성 및 친목도모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CEO 리더십 과정

5월 12일부터 2박 3일 과정으로 실시된 CEO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최고 경영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해 실시되지 못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의 원천 및 변화와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성과 창출, 위기에 강한 기업문화 만들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인문학을 통한 경영자 리더십을 배우는 과정은 참석자 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팀장 리더십 과정

5월 25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된 팀장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팀장급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능력, 변화/혁신 주도, 전략적 사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칭찬의 기술 및 코칭을 통한 팀성과 향상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팀장이라는 직책 하에 조직 및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를 통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 졌다.



임원 리더십 과정

6월 8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복한 일터 만들기과 변화하는 나, 가치창조 경영 및 도전적 경영환경과 전략경영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여러 계열사의 임원들과 팀을 형성하여 각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과제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 등 이론강의의 보다는 실습을 통한 실행력 강화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소 만날 기회가 없었던 타 계열사 임원들과의 Networking 등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임원 리더십 2차 과정 및 팀장 리더십 2차 과정이 9월 및 10월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며, 모든 교육과정은 상반기 과정과 마찬가지로 신원레저개발(주)에서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 소재 "숲속의 아침" 펜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 또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위기에 강한 기업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경영의 핵심요소 및 리더십 역량 제고를 비롯하여 '창의/도전열정/공정투명' 이라는 그룹 기업문화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질화계가스 · 고차 실란가스 · SF6 대체물질 등 개발 박차 특화된 기술력으로 경쟁력 높일 것

특화된 기술, 제품경쟁력 확보, 전문 인력 등을 갖춰 명실 공히 특수가스종합메이커로 도약해 온 (주)원익머트리얼즈가 최근 질소산화물가스, 고차실란가스 등 특수가스 수입품목의 국산화 및 지구온난화가스인 SF6 대체물질 개발에 나섰다.

질화계 가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질화계 가스는 반도체 및 플래시 메모리 제조 공정에서 SiON(실리콘 옥시 나이트라이드)막을 형성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로서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주요 반도체 재료다.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는 현재 저순도 질화계 가스를 수입해 차별화된 정제 공정을 거쳐 부가가치가

높은 고순도 질화계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을 생산 중에 있으나, 최근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원료 확보 곤란 등의 문제로 질화계 가스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개발팀에서는 질화계 가스 합성 및 정제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 현재 상용화 공장 건설을 위한 베이직 디자인(Basic Design)을



완료하고 상세 디자인(Detail Design)을 진행하고 있다. 질화계 가스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에 약 4만㎡ 규모의 제2공장 부지를 확보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공장을 완공해 내년 초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질화계 가스 합성 및 정제기술 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질소산화물 가스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원가절감을 통해 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차 실란계 가스

고차 실란계 가스들은 실리콘의 증착 속도가 빠르고 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 증착용으로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세대 공정에서는



양산공정에 이미 적용되어 향후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주)원익머트리얼즈 개발팀에서는 일차로 저순도 원료를 수입하여 흡착, 응축, 진공배기 등의 정제공정을 거쳐 고순도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 하에 연구개발에 착수

했다. 이를 위해 원료 확보는 물론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정제실험 설비를 갖추고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란계 가스는 공기 중에 1%만 있어도 자연 발화할 정도로 폭발성이 커 취급·처리가 까다롭다. 연구진은 일반 가스 설비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설비를 디자인하고, 각종 분석기, 스크러버 설비, 안전설비 등을 갖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제품은 올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고차 실란계 가스는 제품가격이 다른 가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고순도 고차 실란계 가스의 정제공정 개발을 통해, 잠재적 대규모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회사의 매출증진에 기여하고, 수입제품의 국산화 대체로 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합성 공정도 개발함으로써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이 제품을 완전 국산화 할 계획을 갖고 있다.

SF6

또 (주)원익머트리얼즈는 SF6를 대체할 특수가스 개발에도 나선다. SF6은 불소(F)와 유황(S)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질로서 '육불화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상태에서 불활성, 무취, 무독성 가스이고, 500℃까지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절연력은 공기보다 약 2.5배 높고, 무게는 절연유의 1/140에 불과해 전력기기의 소형·경량화에 큰 이점이 있다. 반면, 지구온난화지수와 수명이 매우 길어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

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와 함께 6대 지구온난화가스로 지정돼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이기도 하다. SF6는 이산화탄소 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만3900배나 높아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물질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

수하였다. 연구진은 SF6 대체물질 개발은 뚜렷한 후보물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연구인 만큼 다른 연구개발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물질이 개발되면 현재의 SF6 시장(국내 600-700억 원 규모)을 능가하는



스 중기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2005년 대비 4%(배출전망치(BAU) 대비 30%)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SF6의 사용 저감 및 대체물질 개발이 단연 주목을 끌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올해부터 5년 동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에 삼성전자, (주)IPS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으로 SF6 대체물질 개발 연구에 착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개발팀 김대현 부장은 “특수가스 시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면 외국계 메이저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특수가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면서 “원익머트리얼즈 개발팀은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연

구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풍부한 지식과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가스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수입 가스의 국산화를 통한 원가절감,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특수가스 공급선 다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명실상부한 특수가스 전문회사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다.

특수가스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풍부한 지식과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원익머트리얼즈 개발팀입니다

이온성 액체 Ionic Liquid

1. 이온성 액체란?

이온성 액체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ionic salts (molten salts)”이다. 소금과 같이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성 염화화합물이 통상 800 °C 이상의 고온에서 녹는 것과는 달리 100 °C 이하의 온도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이온성 염을 이온성 액체라고 하며 특히,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이온성 액체를 상온 이온성 액체(Room Temperature Ionic Liquid, RTIL)라고 한다. RTIL으로는 tetraalkylammonium, tetraalkylphosphonium, trialkylsulfonium, N-alkylpyridinium, 1,3-dialkylimidazolium, N,N-dialkylpiperidinium, N,N-dialkylmorpholium 등이 있다.

액상의 염은 상온에서 증발되지 않고 극성이 높은 매체가 된다. 비열도 높고 통상의 용매가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 듯한 온도에서도 안정한 용매로서 이용될 수 있고 열수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군의 염은 고극성이며 증기압이 없는 등 염의 특징을 갖는 액체이기 때문에 종래의 액체와는 전혀 다른 신규 물질 그룹으로서 학술적인 흥미를 모으는 동시에 산업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2. 이온성 액체의 특성

이온성 액체는 비휘발성, 무독성, 비가연성이며 우수한 열적 안정성, 이온 전도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극성이 커서 무기 및 유기 금속 화합물을 잘 용해시키며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 촉매, 분리, 전기화학 등 광범위한 화학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 공유 결합력이 매우 약한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극성이지만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 용매이다.
- 많은 유기용매와 섞이지 않으며 비수용액이지만 선택적으로 two phase를 형성할 수 있고 소수성 이온성 액체는 물과도 two phase를 이룰 수 있다.
- 이온성 액체는 비휘발성이며 고진공 조건에서 손실이 없으므로 오염물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이온성 액체의 물리적 성질

- 광범위한 유기, 무기화합물을 용해할 수 있어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

Table 1은 다양한 이온성 액체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m.p.(°C)	Density (gcm ⁻³)	Viscosity (cP) (25 °C)	Conductivity (mScm ⁻¹)	Electrochemical Window (V)
[emim][BF ₄]	15	1.24	37.7	14	4.3
[bmim][BF ₄]	-71	1.21	118.3	-	-
[hmim][BF ₄]	-82	1.15	234	-	-
[emim][(CF ₃ SO ₂) ₂ N]	-9	1.39	45 (20 °C)	9.2	4.1
[bmim][(CF ₃ SO ₂) ₂ N]	13 ~ 17	1.29	99 (20 °C)	-	-
[hmim][(CF ₃ SO ₂) ₂ N]	18 ~ 23	-	-	-	-
[emim][PF ₆]	60	-	-	-	-
[bmim][PF ₆]	6.5	1.37	272.1	-	-
[hmim][PF ₆]	-73.5	1.30	497	-	-
[emim][(CF ₃ CO ₂) ₂ N]	-14	1.29	35	9.6	3.4
[emim][(CF ₃ SO ₂) ₂ N]	-3	1.52	34	8.8	4.3
[emim][F(HF) ₂]	-90	1.13	4.9	120	3.3
[bp][PF ₆]	76	-	35 (80 °C)	-	-

emim = 1-ethyl-3-methylimidazolium, bmim = 1-*n*-butyl-3-methylimidazolium, hmim = 1-*n*-hexyl-3-methylimidazolium, bp = 1-butylpyridinium

2) 이온성 액체의 화학적 성질

- 극성의 상을 이룬다.
- 이온성 액체는 극성으로 methanol과 acetonitrile의 중간쯤 되는 극성을 갖는다.
- 강한 수소결합을 형성한다.
- Chloroaluminate 이온성 액체는 alkali halide의 첨가로 중성이나 완충용액을 만든다.

3. 이온성 액체의 종류

이온성 액체는 유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 양이온으로는 디알킬이미다졸륨, 알킬피리다늄, 4급 암모늄, 4급 포스포늄 등이 있으며 음이온으로는 NO₃⁻, BF₄⁻, PF₆⁻, AlCl₄⁻, Al₂Cl₇⁻, AcO⁻, Tio-(trifluoromethanesulfonate), Tf₂N-(trifluoromethanesulfinylamide) (CF₃SO₂)₂N, CH₃CH(OH)CO₂-(L-lactate) 등이 있다.

Fig 2는 상용화된 이온성 액체들의 양이온 및 음이온 구조들이다.

4. 이온성 액체의 응용

(Fig 3)

1) 용매로서의 이온성 액체

현재 석유화학 및 의학 산업에서만 약 10억불에 달하는 유기 용매가 사용되고 있다. 이온성 용매가 유기용매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면 10억불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게다가 이온성 액체의 비휘발성이고 강한 용해력을 지닌 성질을 이용한다면 강산을 이용하는 위험한 화학공정을 무공해 청정공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온성 액체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진다. 이온성 액체가 가지고 있는 용매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이온성을 가짐

- 이온성 물질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전혀 없음 (끓는점이 없음)
- 매우 넓은 범위에서 액체로 존재 (-100 °C~300 °C)
- 화학 반응 시 온도조절 범위가 넓음
- 열적으로 매우 안정함
- 물에 분해되지 않고 매우 안정함
- 다양한 유기물, 무기물을 용해시키는 능력이 뛰어남
- 다양한 유기반응에 반응성이 없음
- 치환체(R)와 음이온(X⁻)에 따라 다양한 물성 변화가 가능
- Solvent Effect에 의한 반응속도 및 선택성 향상
- 전기화학적으로 넓은 전위창을 가지고 있다.

2) Li Ion battery 전해질 용도로의 이온성 액체

핸드폰,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에 포함된 다양한 전자장치의 주요부품인 리튬계 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에너지 효율성 때문에 자동차나 아주 큰 동력 시스템까지 그 활용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리튬 배터리스истем은 전해액 용매로서 휘발성과 가연성 유기화합물의 사용으로부터 야기

Figure 1. 대표적인 이온성 액체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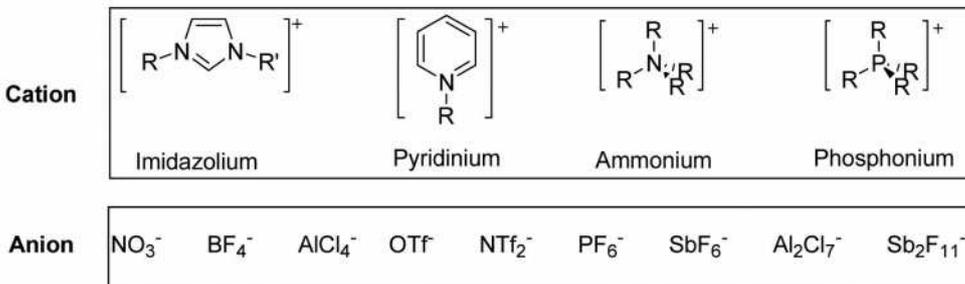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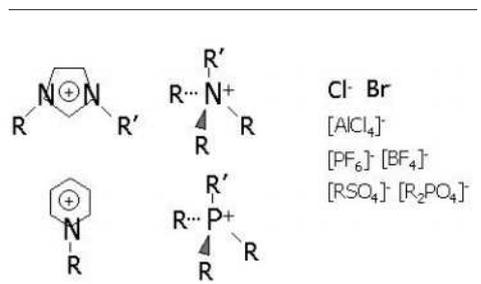


Figure 2. 상용 양이온과 음이온



되는 안전성 문제를 가진다. 그러므로 새롭고 안전한 전해액의 개발이 고도로 요구된다.

최근에 상온 이온성 액체(RTIL)는 넓은 전기화학 적 창, 높은 전도도, 비가연성, 넓은 운전 온도 범위와 같은 유리한 특성 때문에 리튬 전지용 전해 액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 비휘발성 : 증가된 온도에서 밀폐된 전지 안에서 작용하는 이온성 액체 전해질은 거의 무시할 정도의 증기압을 가진다. 게다가, 유기 증기 입자들이 많지 않아 증기발화의 가능성을 제거해 주므로 이온성 액체 배터리의 총체적 안전성을 증가시켜준다.

(2) 비가연성 : 직접 glass separator안에 잠겨있는 이온성 액체에 불을 붙이면 가연성 특성의 음이온은 불이 붙는다. 그러나 가연성 원료가 제거되자마자 이온성 액체는 즉시 소화되고 변하지 않은 전해액만 남아있다.

(3) 넓은 전기화학적 창 : 이온성 액체의 양이온과 음이온들은 각각 전기화학적 산화 환원에 아주 내성을 가지고 있다.

(4) 넓은 열적 운전범위 : RTIL은 200°C이상에서

도 열적으로 안정하다.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40°C이하에서도 액체 전해액 성질을 유지한다.

(5) 적합성 : 이온성 액체 전해액은 일반적인 배터리 장비 안에 사용되는 금속 및 고분자들과 잘 어울린다. 그러므로 제조기술이나 조립에 어떤 특별한 물질이 필요없다.

(6) 용해도 : 이온성 액체들은 유기, 무기 그리고 고분자 물질들까지 넓은 범위의 물질들을 녹일 수 있다.

3) 촉매로의 이온성 액체

이온성 액체는 다음의 화학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이온성 액체는 Lewis acid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고온과 AlCl₃와 같은 강산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반응에 사용된다. (예 bmimPF₆에 녹은 Vanadium (IV) acetate에 의해 Vanadyl acetate의 trimerization 반응)

(2) 수소화 촉매나 윤활유 제조와 같은 Refining에서의 촉매

(3) Olefin의 dimerization, oligomerization, polymerization 반응의 촉매

(4) Iso alkene 등의 가지(branched)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한 olefin의 Alkylation 반응의 촉매

(5) Ester화 반응에서 Sulfonic acid의 Brønsted 산 촉매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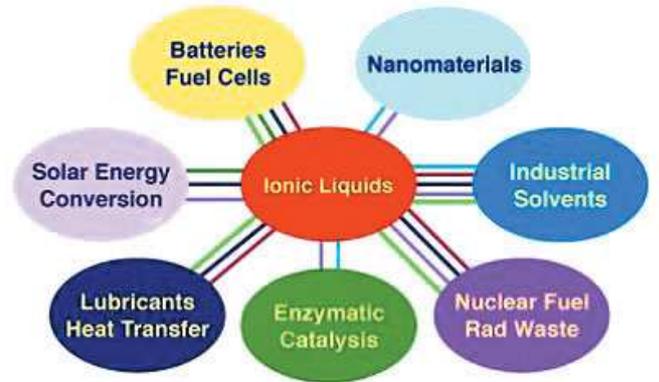
(6) Aromatic ring의 polymerization, Friedel Crafts alkylation, Friedel Crafts acylation, Recudtion, Carbonylation, Sulfonation, Nitration, Oxidation, Halogenation 반응 촉매

(7) 그 밖 전이금속 촉매의 Solvent와 Chlorination, Bromination 반응에 사용

4) Chemical Separation에서의 이온성 액체

이온성 액체는 조정성과 낮은 증기압, 열적 안정성 및 넓은 범위의 액상 유지성으로 인해 액액 추

Figure 3. 이온성 액체의 상업적 응용 가능분야



출 및 유기용매나 금속 이온가스의 막 분리 등에 유기 희석용제를 대신하여 사용된다.

- (1) 액액 추출 : 수용액 상으로 부티의 유기물 또는 금속의 추출에 사용
- (2) 탄화수소 제조 : 탄화수소에서 방향성 물질의 선택적 추출과 탄화수소 연료에서 황, Organic sulfur, Mercaptan의 제거에 사용
- (3) Boiling point가 유사하거나 Azeotropic mixture의 분리, 다양한 hydrocarbon의 분리 및 process에 사용
- (4) Gas 분리 : 이온성 액체로의 선택성 solubility를 이용하여 가스 분리 (예, CO₂는 imidazolium based의 이온성 액체에 녹으나 산소, 질소, 수소, CO, Ar 등은 녹지 않는다)
- (5) 막분리 : Carrier로 이온성 액체를 함유한 supported liquid membrane (SLM)는 선택적 용해도와 비휘발도를 가지며 비싼 용매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분리 가능. (예, Hexylamine, Diisopropylamine, triethylamine을 bmim PF₆를 함유한 PVDF membrane을 사용 선택적으로 이송)
- (6) 분석 및 소규모의 분리 : Gas chromatography에 정지상으로 이온성 액체를 함유하여 사용 (예, 용융 silica에 이온성 액체를 도포하면 두가지의 성질을 가짐, 즉 비극성 조성에 저극성 상으로 작용하거나, strong proton donor기를 함유한 조성에 대해 반응성 있게 작용함.)

5) 연료 산업에서의 이온성 액체 (Fig 4)

이온성 액체는 energy 분야에 잠재적인 응용성

을 갖는다.

- (1) 고체연료(석탄, Kerosene, Oil 열암유)의 액화, 가스화, 화학적 전환에 응용 : Heavy oil의 점도나 분자량 감소에 사용되거나 석유 well의 산화 반응에 사용
- (2) 원유의 개질 : H₂S나 CO₂ 흡수, mercaptan 제거 등에 사용
- (3) 폐기물로부터 함유물의 환경친화적 제거에 사용 : CO₂나 다른 화합물의 흡착, 황산 제조, 부산물인 물의 개질
- (4) 탈황반응: Hydrocarbon 연료로부터 황의 제거
- (5) 핵연료 순환 : 재처리 공정의 재래의 용매를 대체

6) 이온성 액체를 사용한 Polymerization

산업용 폐기물의 주된 조성은 사용하고 남은 유기

용제로 고분자 산업에서 이런 용제 vapor를 제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온성 액체는 휘발성이 거의 없으므로 고분자 반응이나 고분자 물질의 제조 과정에서 비휘발성의 유기 매개체로의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Green chemistry" 외에도 이온성 액체는 새로운 polymerization process에 특이한 kinetics를 제공하기도 한다.

5. 맺음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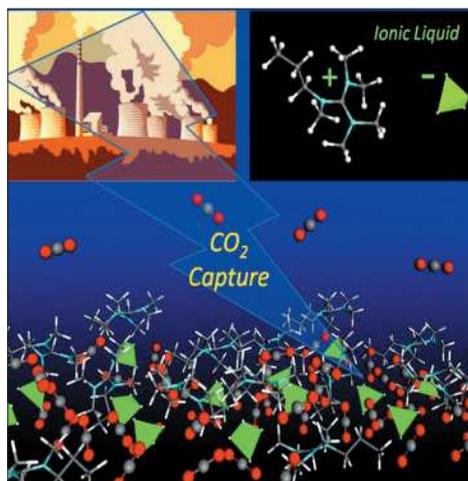
지난 10 여년동안 이온성 액체는 관심과 연구에서 많은 성장을 보였다. 이온성액체는 단순히 유기용매의 대체제 이상으로 증가되는 다양한 응용분야

에서 많은 장점을 입증하였다.

이온성 액체의 물성이 적절한 음이온과 양이온결합을 선택하여 조절됨에 따라, 연구조사에 의한 응용분야가 합성, 촉매, 전기화학분야, 폴리머화학, 분리기술, 생체촉매분야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원하는 높은 물성을 갖는 이온성 액체 설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만일 이론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신물질, 신소재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공정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온성 액체의 놀라운 가능성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Figure 4. 이온성 액체의 선택적 CO₂ 흡착 기능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역인의 DREAM · CHALLENGE · PASSION

SECTION 02 Challenge



28 Excellent case
이나모리 가즈오
JAL의 규원투수가 되다



26 Wonik's Dream Team
㈜위닉스 부품사업부 생산팀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 우리는 최강 생산팀!



30 Self Innovation Note
㈜원익워츠 세라믹 사업부 김덕수 부장
革新은 하나의 習慣이고 文化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 우리는 최강 생산팀!

(주)위닉스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혼성집적회로 제품 및 GPS 안테나, RF 부품 등의 제조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로 성장해 왔다.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생산 분야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팀의 비중이 크다. 활기찬 움직임으로 회사성장의 동력원이 되고 있는 생산팀을 만나봤다.

생산 현장이라고 해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연상하면 오산이다. 영화에서처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도 기계와 별반 다르지 않게, 기계처럼 일하는 현장은 오히려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직원 각자도 직장생활을 부담으로 느끼기 쉽다.

경북 구미시 황상동에 위치한 (주)위닉스 부품사업부 생산 현장은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웃음이 조화를 이룬다. 생산 직원들은 고품질의 제품만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유대감과 친밀감도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



10년 이상 베테랑 팀원들, “라인관리 손발 착착”

(주)위닉스 부품사업부 생산팀의 업무는 Ass'y/PFT/Sensor 및 전장/불량 분석 및 공정 개선 라인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Ass'y 라인은 PCB 또는 인쇄된 기판 위에 능동 및 수동 소자를 장착하여 부품의 특성을 구현하는 공정으로, 3EA의 SMT LUNE과 기능 시험실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CATV module, Attenuator, Converter(AC/DC, DC-DC) 등이 생산되고 있다. PRINT · FIRED · TRIM의 이니셜을 딴 PFT 라인에서는 세라믹 기판 위에 각종 전극(Au, Ag,

Pd, Pt/Ag) 및 저항 PASTE(1ohms~10Mohms)로 회로를 수 회 인쇄 및 소성을 반복해 원하는 전기적 회로를 구성한 후 레이저빔을 이용 미세한 제품의 특성을 구현한다. Humidity sensor, Fuel gauge, Blower controller 등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또 Sensor 라인은 전극이 인쇄된 기판 위에 압력 die를 장착해 각종 range 및 종류별 압력 센서를 만든다. 전장 라인에서는 자동차 부품인 alternator, regulator 등이 생산되고 있다. 불량 분석 및 공정 개선 라인에서는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 분석 및 이를 통한 공정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정연화 부장을 비롯해 권혁대 과장, 정창식 과장, 홍대승 과장 이하 직원 등 총 12명이 각자 맡은 생산라인을 관리하고 있다.

생산팀은 고객사와 약속한 납품일자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를 위해 생산관리자들은 원재료 및 자재를 투입부터 생산 데이터(생산 시간 및 장비 가동률 등)를 기준으로 생산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절해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생산팀원의 대부분은 업계에서 일한지 10년 이상 베테랑들이다. 올해로 근무 했수 25년차인 정연화 부장은 (주)위닉스 공장이 이곳에 세워지던 시절부터 회사와 고락을 함께 해 온 회사 역사의 산증인이다. 또 길모습만 봐선 다들 '젊은 인상' 들인 팀원들도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들어와 짧게는 5년, 보통 10년 넘게 일해오고 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만큼 팀원들은 무슨 일을 해도 손발이 착착 맞는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아는 만큼 이해도 빠르기 때문이다.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팀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뤄져 해결도 재빠르다.

생산팀의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는 홍대승 과장은 "심지어 누구네 집에 밥 손가락이 몇 개 줄 알 정도로 팀원들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정연화 부장도 "팀원들은 현장에 있다가도 회사 앞 너른 잔디마당에 나가면 어느새 형, 아우가 된다"며 거든다. "이왕 일하는 것 서로 이해해주고, 부담 없이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다보니 퇴사한 직원들과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낼 정도예요."

이렇듯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하는 생산팀은 팀의 단합과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단합대회를 갖고, 수시로 족구 등 운동경기를 즐기고 있다.

개별 생산성 성과 지표 게시, 생산성 향상 통해 비용 절감

생산팀의 결속력은 곧 (주)위닉스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팀은 각종 공정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원재료 비용 및 작업 시간 절감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생산팀은 매달 개별성과 지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

생 산 팀 은
 각종 공정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원재료 비용 및
 작업시간 절감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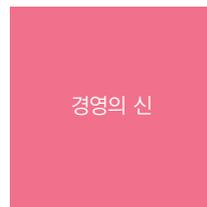


를 통해 (주)위닉스는 130%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생산라인의 현장직원들은 주말도 없이 바쁘지만, 외국 고객사와 약속한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열심이다.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설렁설렁하는 법이 없다. 워낙 작업공정이 세밀하다보니 꼼꼼함과 신중함은 필수. 직원들은 불량률을 최소화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생산팀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은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외국으로 80%이상 수출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생산을 시작한 혼성집적회로 제품 및 RF 부품은 초기에는 Motorola, Siemens 등 세계적 우량기업들과의 장기거래로 전체매출의 50% 이상을 창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SMI, ALLsensor 등의 Presseur Sensor 부분과 Littlefuse의 FUSE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매출의 40~5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위닉스'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렇듯 열정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생산팀이 있어 (주)위닉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배 려 하 고 보 살 피 고 민 고 돕 는 기 업 활 동

시작한다. 사명과 목적을 충분히 서로 이야기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전 직원이 공유한다. 이것이 '교세라 철학' 이고 철인경영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최고경영자(CEO)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준 채 깃발 휘두르면서 너는 이 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하는 식으로 지휘하는 것만으론 되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따라오게끔 하려면 모든 경영철학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세라는 그렇게 해서 지난 50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내본적이 없다. 교세라는 교토에서 세라믹을 만드는 회사라는 의미다. 다양한 원료를 고열로 구워내 제조하는 세라믹은 철에 이어 제2의 '산업의 쌀' 로 불린다. 세라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교세라는 전기전자·자동차·의료용 부품은 물론 반도체, 태양광 발전패널, 휴대전화, 복사기, 산업용 공구, 유기재료 등 완제품도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1285억 엔(약 15조원)이다.

일본 굴지의 대기업인 교세라와 KDDI의 창업자인 그의 공식 직함은 교세라 명예회장 겸 KDDI 최고고문이다.

그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성공 방정식'으로도 유명하다 '성공=인격·사고방식(-100~100)X노력(0~100)X능력(0~100)' 이라는 것이다.

노력과 능력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부족해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다. 그는 이런 방정식에 맞게 살아온 기술자·과학자·예술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일본의 노벨상' 으로 불리는 '교토상' 을 제정했다. 그가 1983년 설립한 경영스쿨 '세이와주쿠'에는 해마다 수천 명이 몰려든다.

아메바 경영, 가족경영 등 경영계 신조어도 많이 만들었다.

가족경영이란 가족의 바탕인 신뢰를 회사 내에서도 통용되도록 한 것이다. 모든 종업원이 같은 사고방식과 철학을 공유하는 철인경영을 얘기한다. 이나모리 회장은 "능력주의를 하면 유능한 사람이 노력해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사내에서 알력도 생긴다"며 "회사가 발전하고 활력이 넘칠 때는 능력주의가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협력도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 성장구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교세라는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조직을 세분화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아메바 경영'으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 직원 6만 명이 철학·사명·목적을 공유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 조직을



잘게 나눈다. 매월 200개 이상의 사내 독립채산 부문이 결산을 보내오면 경영상태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중학교를 두 차례 낙방하고 대학을 한 차례 낙방했다. 경영을 그만두고 승려가 되기도 했다. 쓰러져가는 거대기업 JAL의 회생을 책임지면서 보수는 10원도 안 받고 있다. 그는 "실패하면 비참한 생각이 들고 낙담도 한다"고 말해왔다.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며 세상을 원망하기 쉽지만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역경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일했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다. 실패에서 뭔가를 배운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인 채 정면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가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유다.

Self Innovation Note

(주)원익쿼츠 세라믹 사업부
김덕수 부장



革新은 하나의 習慣이고 文化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6월 오후. 경영지원 부와 통화를 마치고 답답한 가슴을 식히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다. 사보에 실리는 『Self Innovation Note』의 실으려 하니 원고 좀 작성해달라는 청탁전화였다. 과연 내가 이런 주제로 원고를 쓸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기분이 먼저 들었지만, 이번 기회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감사했다. 또한 이 장을 평소에는 정리해보지 못했던 ‘자기개발(Self Innovation)’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모처럼 차분히 정리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하라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현실적인 장애를 걱정하거나 골몰하기 보다는 행동하는데 힘쓰며, 변화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선두에 서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왜 1+1이 2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몰라도 우리는 2라는 답을 낼 수 있고, 원심력, 구심력 등의 이치는 몰라도 두발 자전거를 쓰러지지 않고 탈 수 있듯이 이론이나 기법에 너무 얽매다가 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겠다.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 고노쓰케 씨는 “대학 교수는 100을 알고, 자신은 10밖에 알지 못하지만, 돈 버는 데는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이유는 10밖에 알지 못하지만 10을 전부 실천하기 때문”이라 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동을 통해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업무 평가도 스스로 체크하는 팀과 아닌 팀의 차이



에 임하는 팀원과 온갖 불평,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개선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팀원의 차이는 극과 극이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통제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업무 평가도 스스로 체크하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차이도 극명하다.

나 또한 사실 권한만 주장하고 책임은 뒤로 미뤄버리는 자유 방임형 팀장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하지만 팀원의 비전과 팀의 성공적인 성과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팀장으로서 팀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팀원들에게 각자 자기 위치에서는 모두가 팀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혁신은 하나의 습관이고 문화이지 프로세스나 정책이 아니다.”
이 말은 혁신은 한시적인 구호나 일시적인 행사로 진행하여서는 실천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

는 뜻이다. 처음 얼마간은 몸에 맞지 않아 힘들고 서툴더라도 지속적인 습관화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습관화되지 않은 혁신은 실패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례행사로 금연을 선언하고 며칠 또는 몇 달 후에 다시 흡연을 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작심삼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2010년 상반기 세라믹 사업부는 목표치를 넘어선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선 덕분도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의지가 한 데 모아져 이뤄낸 결실이다.

Self Innovation Note

(주)원익쿼츠 세라믹 사업부
김덕수 부장

실패를 하더라도 '창조적으로'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실험이나 결과물을 보고하기를 꺼려한다. 이는 실패로 인한 비용 손실이나 시간의 Loss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들이 말하는 진정한 혁신은 대부분 '창조적 실패'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중요하다는 것.

이 점에 착안해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실패사례를 공유해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실패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반복적인 실패, 더 큰 실패를 예방하고 실패사례를 성공의 지혜로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도전정신을 키운다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지금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부지런히 자신을 개발해 능력을 키우면 된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 것이다.

뒷다리에 5cm의 족쇄를 차고 있는 완전히 다 큰 코끼리가 있다. 이 족쇄는 2m 길이의 사슬에 연결되어 있고, 그 사슬은 또 땅에 박혀 있는 말뚝에 묶여 있다. 하지만 코끼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뽑아 낼 수 있는 말뚝이다. 그런데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코끼리가 사슬에 묶였던 때는 아주 어렸을 때였고, 그때는 그것을 움직일 만한 힘이 세지 않았었다. 처음에는 말뚝을 뽑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 얼마 안 가서 그래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힘이 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 물과 이따금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생활에 만족해할 뿐이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말뚝에 묶여 있으면서도 불이 날 경우에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밥 줌머, <사이코사이버네틱스 2000> 중에서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 타성, 선입견 등에 갇혀 쉽게 지내는 것은 아닐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인 능력의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불가능할 것 같다고 포기해버리기보다는 실현가능한 상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보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언젠가는 실현가능한 일이 되어 당신을 즐겁게 웃게 할 수 있는 그 날을 꿈꾸어본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혁신은
하나의 습관이고
문화이지
프로세스나
정책이 아니다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CHALLENGE · PASSION

Passion

SECTION 03



34 Zoom in
(주)위닉스 STB연구소 테니스 동호회 <테락회>
스트레스는 날리고, 실력은 키우고, 친목은 다진다!!



36 Positive Energy
(주)원익 메디칼 1사업부 유근식 사원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유쾌 상쾌 통쾌
볼링, 바로 이 맛 아닙니까?

38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아토 한마음 봉사단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우리가 감싸줘야죠"



40 Talk Box
원익인의 멋진 상사유형
원익인이 말한다! 멋진 상사유형 Best



Zoom in

(주)위닉스 STB연구소 테니스 동호회
<테락회>



스트레스는 날리고, 실력은 키우고, 친목은 다진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이는 (주)위닉스 STB연구소 테니스 동호회 '테락회'. 4년차 동호회지만 100회가 넘는 모임회수로 치면 단연 최고다. 숲 속 코트에서 즐기는 테니스 한 게임에 업무스트레스는 한방에 날아가고, 코트엔 늘 웃음도 넘친다. 지금까지 '락(樂)'에 비중을 뒀다면, 이제는 실력을 키워 진정한 '테락회'가 되겠다는 회원들의 각오를 들어봤다.



함께 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죠

(주)위닉스 STB연구소는 서울에서도 사무실이 유독 많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10분만 가면 아름드리나무에 둘러싸인 숲 속 테니스코트가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테락회(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찾는 곳이다. 들이마시는 공기부터 다른 쾌적한 이곳에서 회원들은 일주일간 업무를 하며 굳은 몸도 풀고, 쌓인 스트레스도 푼다. 다가올 한 주를 활기차게 보낼 에너지도 가득 충전한다. 김왕길 연구원은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모이면 7시쯤 되는데, 보통 10시 반에서 11시까지 친다"며 "뒀니 뒀니 해도 테니스의 매력은 공이 라켓에 맞았을 때 전해지는 느낌이지만, 아직까지는 친목도모의 즐거움이 더 크다"며 웃었다.

이날 모임에 함께 한 회원은 8명. 함지호 과장은 "올 봄에 제가 가입함으로써 회원 1명이 늘어 12명이 됐다"며 "참여율이 늘 60%를 넘으니, 모임회수와 참여율 모두 우리가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7시부터 시작된 운동에서 회원들은 실력에 따라 김영록 회장으로부터 자세교정을 받기도 하고, 혼자서 스윙연습 혹은 복식 게임을 한다. 자세교정을 받은 회원은 박성수 연구원과 김대근 연구원. 가입 시기와 실력, 자세교정을 받게 된 이유가 사뭇 다르다.



김 연구원은 동호회 결성부터 함께 한 원년멤버지만 직접 친 건 최근 일이다. 김 연구원은 "집이 인천인데, 업무상 퇴근이 9시를 넘기기 일쑤고 12시 퇴근도 다반사"라면서 "집에서 혼자 운동도 해봤지만 동호회원들과 야외에서 함께 하니 역시 다르더라"고 말했다. 또 "테니스는 자세와 공 맞추기를 동시에 해내는 게 쉽지 않은데, 20년 경력의 회장님이 강사를 돼주셔서 더 좋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동호회 활동이 체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절실히 느낀 경우. 2008년 말 가입해 출장만 없으면 참여할 정도로 열심이던 그는 6개월을 내리 쉬다가 최근 다시 시작했다. 박 연



자세는 이렇게~
손목은 이렇게~
OK?

아하~



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3번 치는 게 체력에도움이 되겠나 싶었는데, 다시치려니 체력 떨어진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 말했다. 특히 야근이나 밤샘이 많은 연구직에는 체력이 필수인데, 동호회 활동이 업무에도 힘이 된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음까지 후련 해진다”고 말했다. 또 “겨울에는 근육이 경직돼 있어 부상당할 수 있으므로 모임을 신다”면서 “실내테니스장을 이용해도 되지만 실력향상에 앞서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야 야외코트를 쓸 수 있

는 시기에만 모인다”고 설명했다. 모임요일이 화요일이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인 약속이 생기는 주말보다 오히려 낫다고. 조성희 연구원은 “(주)위닉스에는 부품사업부와 STB사업부가 있는데,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방송을 볼 때 필요한 셋톱박스를 연구개발해 전량 유럽과 중동국가로 수출한다”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다보니 12시간 가까이 시차가 있어, 바쁠 때는 운동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테락회 12명 회원들은 소프트웨어 연구, 하드웨어 연구, 마케팅에 관리파트까지 업무가 다양하다. 회원들의 실력도 처음부터 친 회원과 나중

에 들어온 회원과의 차이가 확연하다. 김 회장이 꼽는 테락회 에이스는 한만경 연구원. 파워스매싱이 눈에 띄는 그는 재미삼아 시작한 테니스가 이제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한 연구원은 “주로 사무실에 있는 연구직이다 보니 활동적인 테니스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즐거움도 크니,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이라고 말했다. 기왕지사 바쁜 시간을 쪼개 운동하는 것이니 만큼, 김영록 회장의 바람은 언제나 회원들의 실력향상이다. “회원 간의 친목도모나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 테락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교정 코치, 게임심판은 여전히 제 몫이라 아쉽네요. 올해부터는 회원들의 실력향상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어디서 누구와도 자신 있게 단식게임 하는 날까지 저도 회원들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논어>에 보면 ‘지지자(知之者)는 불여호지자(不如好之者)요, 호지자(好之者)는 불여락지자(不如樂之者)니라’ 라는 말이 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어둑어둑해지는 코트를 누비며 테니스를 즐기는 ‘테락회’ 회원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이미 경지에 다다른 듯하다.

멋진 한 게임을 위해! 실력 갖추는 게 목표

이날 모임에는 복장불량 회원도 눈에 띄었다. 운동복을 갖춰 입지 않은 양태석 상무. 하지만 이는 양 상무의 깊은 뜻이었으니, 무릎이 아파서 테니스를 칠 수 없었음에도 모임에 함께 하며 회원들의 자세도 봐주고 게임심판도 보기 위해서였다. 양 상무는 “동호회를 만들 때 애초 목적이 즐겁게 하자였다”면서 “회사에서 가까우면서도 넓고 공기 좋은 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보면 마

Positive Energy

(주)원익 메디칼 1사업부
유근식 사원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유쾌! 상쾌! 통쾌!
볼링,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스트~라이크 볼링을 쳐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10개의 볼링핀이 한 방에 쓰러지며 울리는 소리에 통쾌한 쾌감을 맛본 적 있을 것이다. (주)원익 메디칼 1사업부 메디칼 2팀의 유근식 사원은 유쾌, 상쾌, 통쾌한 스트라이크 맛을 솔하게 봤다. 학창시절 볼링선수까지 했을 정도로 '한 볼링'했다는 그다. 아직도 왕년의 실력이 녹슬지 않은 유 사원을 볼링장에서 직접 만났다.



볼링붐 세대,
“자나 깨나 볼링 생각만 했었죠.”

남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뿐하게 몸을 풀기 위해 볼링장을 찾은 직장인들이 많았다. 그 속에서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스템을 밟아 힘차게 볼을 굴리는 스윙 솜씨며, 방금 볼을 굴린 오른손은 공중으로 올린 채 오른쪽 다리를 살짝 왼쪽으로 틀어주는 마무리 자세까지 동작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띈다. 흰철한 키에 미소도 일품이라 더 눈에 띄는 이 사람, 바로 유근식 사원이다.

“선수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볼링이 거의 붐이었던거ですよ. 엄마 따라 다니다 코치 눈에 띄거죠.”



그랬다.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볼링은 그야말로 '붐'이었다. 시내 중심가엔 어김없이 큰 볼링 핀을 세운 건물이 곳곳에 있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이기만 하면 볼링장에 가 친목을 다졌다. 지금이야 레저스포츠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지고, 또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컴퓨터와 게임기 등이 보급되면서 볼링의 인기도 많이 줄었다. 볼링장 역시 찾기가 어려워졌다.

“많이 아쉽죠. 볼링은 정말 재미난 스포츠인데……. 그래도 문 닫지 않고 지금껏 곳곳이 자릴 지켜온 볼링장은 되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찾아요.” 본격적인 선수생활이 시작되고 유 사원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볼링생각에 눈앞에 볼링공이, 묵직하게 서 있는 스피린이 순식간에 빠악~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왔다 갔다 했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 선수시절에는 명절도 없이 볼링을 쳤다. 하루에 20~30게임은 기본, 평균 200점대로 쳤다. ‘학생 때는 단 하루도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던 덕분으로 고교 시절 서울시 대표로 전국대회에도 여러 번 출전했다. “지원 선수가 200명~3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 8명만 시 대표로 뽑았어요. 하지만 한 번 서울시 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게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회가 있을 때마다 출전할 선수들을 새로 뽑아요. 그러니 개인기량을 열심히



땀을 수밖에 없었죠.” 전국학생볼링대회는 크게 대통령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체전 등이 있는데, 유 사원은 고3때 전국체전에 나가 은메달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에선 금메달을 따 그동안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 대학도 선수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아 특기생으로 선발돼 진학했을 정도다.



볼링은 멘탈(Mental)스포츠, 집중력 향상에 도움 돼

“볼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Mental)이

요. 멘탈이 무너지면 경기가 제대로 안 풀려요. 레인에는 48쪽이라고 해서 결(grain)이 있는데, 선수들은 스피인을 정확히 보면서 그 결과 각도를 다 계산해서 볼을 굴리죠.” 스트라이크도 집중력을 발휘해 스텝과 스피인, 정확도가 고루 맞아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나온다. 퍼펙트는 그런 스트라이크를 한 게임 전부 성공시켜야 나오는 꿈의 기록(300점). 난다 하는 프로선수들도 쉽게 이루지 못하는 퍼펙트를 유 사원은 3번이나 이뤄냈다. 299점은 무려 5번 성공했다. “자세만 잘 잡아도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 처음 볼링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코치에게 레슨을 받는 것이 좋아요. 잘못된 자세 때문에 손가락도 아프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리듬과 밸런스, 타이밍의 절묘한 조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볼을 몸에 붙여 가볍게 안고 4~5스텝을 밟아 리듬을 타고 흐르듯 자연스럽게 레인 위에 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남녀노소 나이무관, 직급불문 하고 즐길 수 있어요”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기에 더 매력이 있다. 직장에서도 신입사원과 과장, 부장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파이팅을 외

쳐줄 수 있는 즐거운 스포츠. 또 볼링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거의 없다. 옷은 편안하고 가벼운 차림이면 되고, 슈즈는 볼링장에서 대여할 수 있다. 게임비도 저렴해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 부담도 적다. 현재 유 사원은 볼링동호회에 가입해 2년째 활동하고 있다. 볼링장에선 선수출신답게 일반인들에게 레슨도 해 주고, 시합에도 출전하면서 볼링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 2주에 한 번은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볼링시간도 가지고 있다. 취미 하나로 자신은 물론 주변까지도 환하게 웃게 만드는 유 사원. 곧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전만큼 취미생활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꾸준한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업무를 보다보면 피로가 쌓이잖아요. 운동을 해야 좋은 줄 알면서도 몸이 잘 따라주질 않죠. 그럴 땐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이라도 해요.”

이날 오랜만에 볼링장에 들른 유 사원의 얼굴에선 피로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 점심 식사 마치고 혹은 퇴근 후에 동료들과 잠깐 볼링 한 게임으로 피로를 푸는 건 어렵지.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유 사원처럼 더위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글 정창욱 · 사진 조인기

(주)아토 한마음봉사단 시흥시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자원봉사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우리가 감사줘야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편부편모 슬하에서 자라 또래의 친구들보다 조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위해 (주)아토 한마음봉사단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6월 26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잔뜩 찜푸린 날씨가 무색할 만큼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조실부모/편부편모 아동들이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것. 시흥시에서 6년째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센터 아이들의 문화체험을 위해 (주)아토 한마음봉사단과 대한적십자

사 시흥지부 협의회가 함께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있었던 날. (주)아토 한마음봉사단의 표정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늘이 그 마음을 헤아렸는지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던 날씨는 이내 쾌청해졌다.

한마음봉사단의 이번 자원봉사에 처음으로 함께한 (주)아토 정명조 전무는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좋아 기분이 좋다”고 미소를 지었고, 한마음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박우정 회장(환경안전팀 과장) 역시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이라며 웃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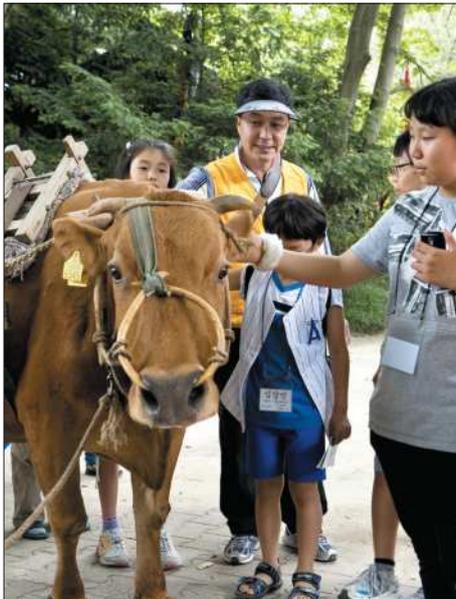
한마음봉사단은 이날 아이들과 함께 민속촌 곳곳을 누비며 여러 문화체험을 함께 즐겼다. 절구질 체험, 널뛰기, 사포·포졸 체험, 곤장맞기, 주리 틀기 등 아이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놀이에 신이 났고, 한마음봉사단은 아이들이 행여 다치진 않을까 노심초



사 하면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세세히 살피느라 분주했다.

일주일 전 미리 사전답사를 다녀온 한마음봉사단은 아이들이 여러 문화체험을 비롯해 농악, 줄타기, 마상무예 등 문화공연도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물론, 점심식사 이후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만한 놀이공원으로 이동해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날 어린 친동생과 함께 온 문정원(여, 12세) 양은 “동생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가족들과 늘 이렇게 행복



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오늘 한마음봉사단 선생님들 덕분에 오랜만에 동생과 손잡고 소풍 온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지난 6년 동안 시흥시는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1:1 학습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문화체험에 나설 기

회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한마음봉사단과 함께한 대한적십자사 시흥지부 협의회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산부족으로 쉽게 나설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주)아토의 도움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예정된 문화체험 행사가 끝나갈 무렵 (주)아토 정명조 전무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밝고 천진난만해서 기분이 좋았다. 날씨도 좋고 별 탈 없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우리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 너무 많다보니 그동안은 일회성 자원봉사 활동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결연을 맺어 한 곳 정도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한마음봉사단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회사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주)아토의 기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고, 보다 더 활성화 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날 한지에 소원을 적어 금줄에 매다는 체험을 한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사랑과 정성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아토 한마음봉사단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행복을 한 이름 선물했다.

글 윤보라 · 사진 김동관



“ 원익사이 말한다!

민

음과 기다림이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다 그렇겠지만,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회 초년생들의 크고 작은 실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겠지요. 저 역시 신입사원답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잘 할거라고 믿어주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꾸짖기보다는 당황하여 좁아진 제 식견을 이해하시며, 업무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하셨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실수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기다려주시는 것을 느끼며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상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선

배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만, 제 예전 모습을 떠올리며 후배를 믿고 기다려주는 상사가 된다면, 후배 역시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선배 또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주)원익
관리지원팀
조환열 사원

(주)원익
인사기획팀
권윤정 사원

“
칭

찬은 후배도 춤추게 한다.
얼마 전 LG전자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상사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수고했어. 정말 잘 했어” “역시 자네야. 자네가 한 일이니 틀림 없겠지” 등 칭찬의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칭찬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부메랑처럼 자신을 칭찬한 상대방에게 한번 더 관심이 가고 그 칭찬의 말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칭찬하는 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간절히 희망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칭찬 또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힘을 지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상사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면 흥이 나서 사기가 충전되고 더 잘하려는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서로에게 새털처럼 가벼운 칭찬거리라도 발견 즉시 칭찬의 화살을 날려봅시다.

”

멋진 상사유형 Best”

어 느 닷 추웠던 계절은 훌쩍 지나, 기대하고 기대하던 여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 입사한지 벌써 7개월째..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아직도 어렵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가운데 몇주 전 프로젝트 관련 팀원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겹살과 소주한잔으로 그동안 쌓여던 것과 앞으로 개인사담을 늘어 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모두에 얼굴에는 붉은 꽃이 피었고, 우리 모두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몇몇은 집에 귀가를 하고 몇몇은 간단하게 호프한잔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저두 포함 되었지요.

그래서 남은 몇몇과 저는 호프를 한잔 더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던중 한통에 전화가 걸려 왔

습니다. 바로 부장님 이셨습니다.

부장님은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지?, 힘들겠지만 조금만 힘내고 이

제는 너희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 나가보자!! 사랑한다. ~~ 라구요.

참에 깜짝 놀라 저두 "부장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들 드렸는데, 전화를 끊구생각을 해봤죠. 뭐랄까~

"약주를 드셔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취중진답이라는 말처럼 맘속에 담아 두셨던 생각이 아니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장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박카스처럼 원기회복을 할 수 있게 만든 말씀이 아니였을까 생각해봅니다. 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주)원익퀵츠
생산기술팀
김태훈 사원

(주)원익퀵츠
품질관리팀
김수연 사원



황 의진 과장님. 면접 담당관이셨던 황의진과장님.

처음 제게 하셨던 질문이 뭐인지 아세요? "차 한잔 할래요?" 그 말씀이 지금 들어도 늘 설레는 기분은 아실까요?

비오는 날에, 긴장까지 한 탓에 뽀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내려앉았죠.

과장님 그 말씀 덕분에 이 곳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입사한지 6개월입니다. 아직까지도 '차 한잔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회사 생활을 들여다 봐주시고, 무한부하직원 사랑 아낌없이 실천해 주시는 황과장님. 오늘은 제가 먼저 '차 한잔' 권해 보려고요.

부하직원의 마음을 아껴주시고 귀기울여 주시는 황의진 과장님.

저..이건 정말 비밀인데요.

완전 사...사.....아니 존경합니다. ^^

원익사의
상사유형 Best

신원종합개발(주)
인사총무팀
이윤정 대리

신

원종합개발에 입사한지 벌써 14
년차.

이렇게 오랜 기간 한 회사에 머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회사에 갖고 있는 애정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저를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동료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이 보며, 웃고 지내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입사 초기에 서툴렀던 업무로 혼이 났을 때 날 위로해주었던 입사 동기들.

야근할 때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커피까지 타주시며 '왜 퇴근 안 해요?'하면서 웃어주시는 토목팀 안과장님.

'대리님! 힘드시죠?'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 주는 어여쁜 여우 후배들~

본사 오실 때마다 잘 지냈냐며 안부 물어 주시는 현장 소장님들과 현장 직원 분들~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함께 나누며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동료 분들이 있어 항상 힘이 납니다.

BEST SUPERIOR

새로운 회사, 신원종합개발에 입사한지 이제 막 반년이 지나갑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 했을 땐, 이직을 한 터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 두려움 반반이었습니다.

참 많이 걱정했었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업무에 익숙해지고, 직원들과도 친해지면서 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경팀이라는 관리 업무의 특성상, 다른 팀이나 현장 관리자 분들과 자주 대화하게 되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 드리고, 또 이 모든 업무를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팀장님과 팀원들 그리고 주변 동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더욱 더 힘이 납니다.

신원종합개발(주)
재경팀
문성준 대리





부

장님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언제가 업무 실수로 다른 부서와 관련된 일까지 문제가 벌어져 부장님께 불려가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따끔하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다해가며 면박주시던 부장님... 저를 혼내는걸 마치고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 부장님은 저를 끌고

해당 부서에 찾아갔습니다. 그 쪽에서도 제 실수 때문에 난리가 났기에 비난과 면박 받을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에 찾아가서 저를 나무라고 사과하라 말씀하실 줄 알았던 팀장님은 오히려 저의 방패가 되어 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강조하며 저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은 물론 일을 책임지고 해결 하겠다는 보증까지 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부장님이 있기에 우리 회사에서 일 할 맛이 납니다. 부장님이 저의 피로회복제 입니다!



“칭

찬은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듯 하다.

첫 입사 후 상사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아무리 찾아보고 열심히 해도 자리만 맴돌뿐 특별한 답이 없는 현실 속에 어느덧 시간은 흘러, 6개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즈음하여 갑작스런 회사의 분할.... 그리하여 팀장님을 모시게 되었고, 처음으로 보고서 다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6개월간 난 무엇을 했나?...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정확히 8번을 다시 작성 하면서 “아니 내가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면서 점의 죄송함과 나 스스로의 원망이 점점 팀장님으로의 원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결국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얼굴까지 붉혀가며, 씩씩 거리고 보고를 드리는중 낮으막하게 듣게된 한마디 “그래 이제 됐다!”

속으로 얼마나 신이나던지, 가슴이 뻥뚫리는 기분이었다. 얼굴은 붉어지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하다.

하지만 이제 어느정도 회사생활에서 익숙해 진후 가장 힘이나는 한마디는 “그래 역시!!” 라는 말이다. 긴 칭찬의 말 보다는 간결한, 하지만 느낌이 팍 오는 그런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유지해 주고, 더 열심히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자명한 사실이다.

원익사의
상사유형 Best

BEST SUPERIOR

(주)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이성윤 과장



직 장은 엄연한 계급사회이며, 책임과 권한이 존재하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작
던 크던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에는 권한 역시 정당하게 주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책임과 역할을 주는 동시에 권한 또한 주시는 팀장님이 계십니다. 정말
믿고 이해해주심이 몸으로 느껴지니, 저 스스로도 그 권한에 맞는 행동을 배우게 되었
고 권한에 준하는 실력을 위하여 스스로가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하직원이 있
는 상황에서는 저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불러 타이르시는 배려 또한 저희가 저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
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조절하여 팀을 관리하시는 팀장님이야 말
로 팀원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믿어주고 저희가 직접 결정하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상하거나 벌칙을 주심에 저희를 더욱 분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지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나의 권한을 키워 주길 마냥 기다리
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주인의식이 생기길 기다리는 그런 패단이 없도록 부하직원
및 동료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위닉스
경영지원팀
이태울 사원



신 입사원으로서 누구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전학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 등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학도 어려울 진데 회사생활의 기초가 되는 입사는 내향적 성
격을 가진 저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위닉스 입사 첫날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경직되었던 제가 떠오릅니다. 자신
의 자리 역할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쭈뼛거리던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다름아닌 같은 팀 동료이자 팀장님 이셨습니다.

특히 팀장님께서 환대를 해주셨고 제가 회사생활의 시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
도록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팀장님뿐 아니라 같은 팀 과장님 대리님들도 간단한 컴퓨터 설치에서부터 제가
맡게 될 업무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사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지금 자랑스러운 위닉스인으로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에게 팀장님과 과장님, 대리
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따뜻한 상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닉스
경영지원팀
김정훈 과장



“
토

크박스 주제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일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가 가장 힘이 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그 분이 다음아닌 나를 지도하고 평가하시는 나의 상사일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해본 적이 없어 자신 없어 하는 저에게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기는 건 너를 믿기 때문이야. 잘 할 수 있을거야. 한번 해봐!” 라고 하시며 등을 두들겨 주시던 팀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보다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덕분에 이번 보고는 잘 마무리됐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

희 팀 부장님은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저는 그런 부장님을 일명 카부장님 이라고 부르곤 하지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입사 초에는 호랑이 같은 부장님이 너무 무서워 제 이름만 부르셔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곤 했습니다.

다소 무뚝뚝 하시고, 또 다정다감 하신 스타일은 아니시지만, 묵묵히 저희 구매팀을 지켜주시는 캡틴! 이십니다.

한달 중, 가장 바쁜 월말 마감 때 업무가 이것저것 겹치다 보면 제가 홍콩과 안드로메다를 하루에도 몇 백 번씩 다녀오는데, 그럴 때 마다 부장님이 말없이 지켜보시며, 카리스마 있는 저음으로 “아~” 하고 부르시고, 씩의 미소를 머금으시며 “마감 끝나고 막걸리나 먹으러 가자!” 하고 말씀 하십니다. 그럴 때 마다 저는 한쪽 가슴이 훈훈해 지며, 마

구마구 힘이 납니다! 이렇다 저렇다 별말씀 안 하셔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격려와 응원이 담겨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질책보다는 칭찬에 춤을 추는 고래는 고래인가 봅니다.. 슬고래요!

부장님 사랑합니다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책임심사역
이필영



1. 회식때 1차 마치고 2차는 아래 직원들끼리 놀라며 카드 주고 가시는 이사님
2. 회사 곳곳에 일에 솔선수범 하시는 선배님
3. 보너스 배분시 본인 몫보다 말단직원을 슬쩍 더 챙기시는 팀장님
4. 하급자 잘못을 본인 잘못으로 돌리고 대신 꾸중 들으시던 차장님
5. 야근할 때 본인 일이 아니더라도 함께 도와 주며 파이팅 하시던 대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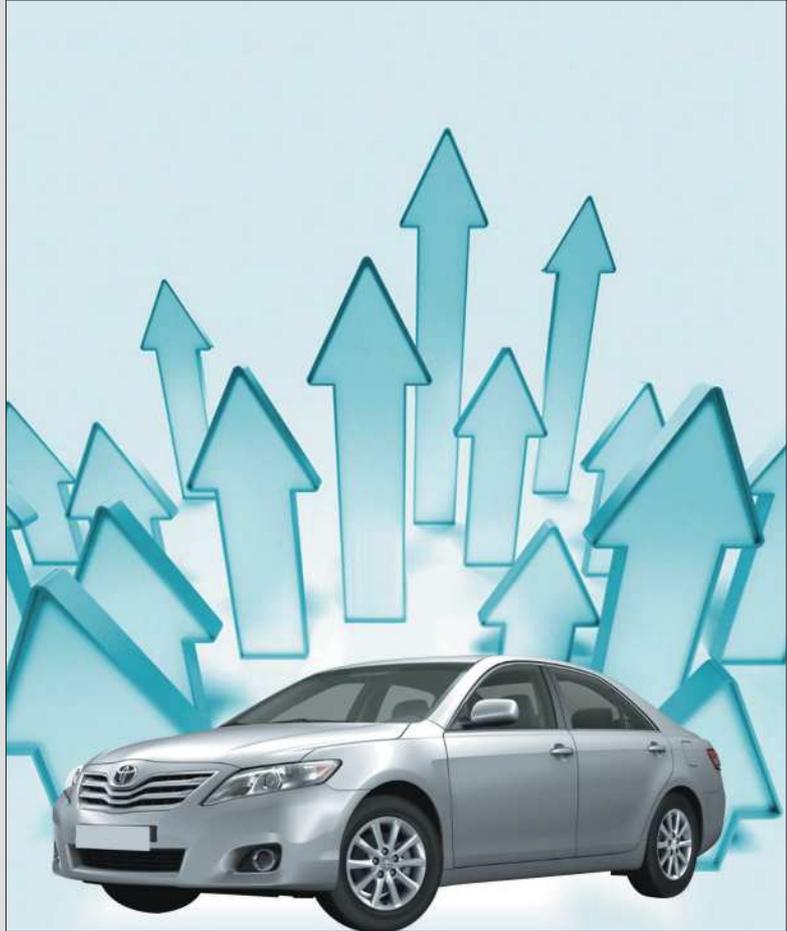
도요타의 추락과 부활 노력에서

기업 경영의 근본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도요타의 추락

그리고 부활의 지어에서 배운다



리콜 파문으로 자존심을 크게 구긴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7월 2일 렉서스, 크라운 등 전세계에서 팔린 자사 차량 27만대를 리콜한다고 다시 발표했다. 이중 18만대는 해외에서 팔린 차량이다. 도요타의 추락과 부활 노력에서 기업 경영의 근본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도요타는 지난 5월 11일 결산발표를 했다. 2010년 1~3분기 결산에서 영업 부문에서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도요타의 2010년 1분기 중 2월에 200억 엔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영업손익에서 1475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리콜 파문 이후 2분기 만의 흑자다.

그러나 도요타의 실적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8년 1분기에만 891만대를 팔았지만 올해 동기에는 723만대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최대수익원인 북미지역에서는 295만대에서 209만대로 30%나 줄었다.

도요타의 이지치 다카히코 전무는 “남은 고정비는

활동비, 노무비다.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 전기만큼 감축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정작 문제는 이번 분기의 실적이 아니다. 도요타가 최고수익 기록을 앞으로 다시는 깨기 힘들 것이라는 비전의 문제다.

경비 삭감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보다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

도요타의 실적은 2008년 1분기가 정점이었다. 미국에서 대형차 판매가 호조였고 환율도 1달러당 110엔을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시장이 아무리 성장해도 1대당 판매이익이 낮아져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힘들다는 게 일본 경제계의 판단이다. 한때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5~6% 수준이 고작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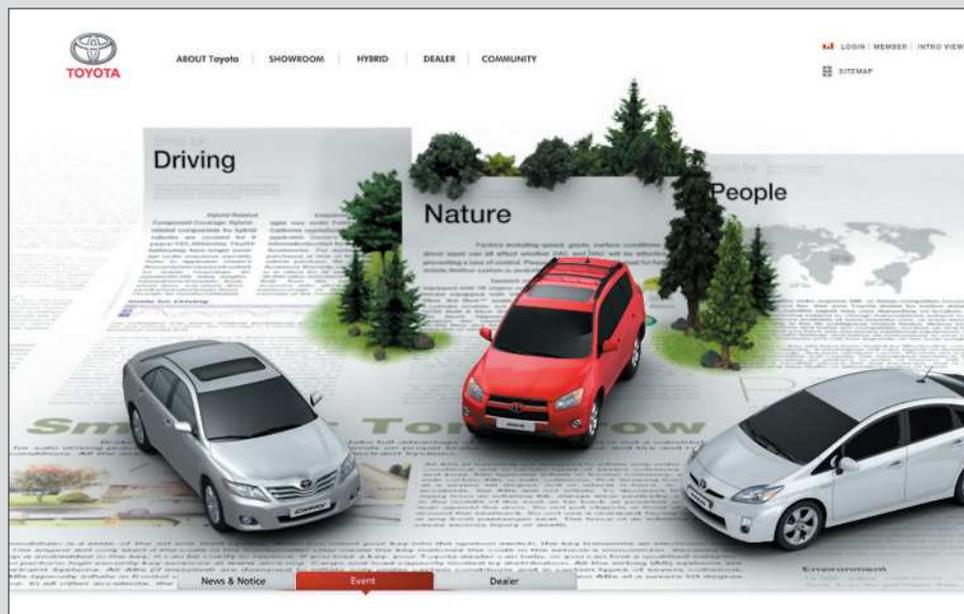
한때 미국의 GM을 넘어서며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였던 도요타의 추락은 모든 기업에 큰 교훈을 준다.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며 번영을 이어가자 해외공장을 미국에 집중시켰다. 미국차의 전유물이던 픽업트럭도 도요타가 가장 많이 팔았다. 그러나 해외공장을 지나치게 확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부품 조달의 문제였다.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면서 도요타의 품질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리콜은 아주 단순한 부분이 문제였다. 운전석 밑에 있는 흡반이용 카펫트가 밀려사 가속페달 사이에 끼 수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그러면서 급발진 등 다른 사안으로 확대된 것.

하지만 도요타는 좌절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리콜 파동에서 자유롭진 못 하지만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짜고 다시 일어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도요타의 공격전략은 선진국에서 판매대수를 회복하기보다는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고, 신흥국에서는 양적인 판매대수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2012년 상반기 중국 장춘의 공장을 가동



시켜 베스트셀러 모델인 카롤라를 연간 10만대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인도에서는 새로 개발한 에티오스를 양산한다. 브라질에 공장을 세워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친환경차로 판매량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은 제품을 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선진국 시장에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가정용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다. 2012년 전기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파는 것이 의무화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독자 개발한 전기차를 출시한다.

도요타는 2020년을 목표로 주요 차종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다. 도요타의 차세대 전략 핵심으로 밀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 전기차 개발 책임자인 다나카 요시카즈는 “보조금을 지원해 일반 프리우스와의 가격차를 20% 정도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도요타가 신흥국과 친환경 기술 차에 들인

노력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이분법적 공격전략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도요타는 렉서스와 같은 고급차량과 SUV 등 대형차로 큰 이익을 보았다. 하지만 기존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택했다. 도요타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도요타가 그간 자신들의 강점이 아니었던 신흥국 시장과 친환경 기술 차량 개발을 등한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위기를 대비해 주력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에서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위한 시도라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도요타는 당장 돈 되는 사업, 현재 잘 팔리는 사업이 언제든지 위기가 되고 반대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기업들에게 도요타의 부활 의지는 이처럼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셈이다.

한정연 이코노미스트 기자

잠들어 있는 나만의 '오리진'을 깨워
영감을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가 되어보자.

운 명 을 바 꾸 는 창 조 의 기 술

오리진이 되라



창조를 꿈꾼다면 '오리진(origin)'을 추구하라.

당신의 일과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창조의 필살기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획기적인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갈증에 목마른 사람,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영감의 불씨를 지퍼줄 자극제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영감의 재료들이 가득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CEO 커뮤니티이자 창조학교인 'SERI CEO'를 운영하고, 1만 명의 CEO들을 창조의 바다로 유혹해온 창조 멘토, 강신장이 현장에서 갈고닦은 창조의 에센스가 유감없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 책이 말하는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오리진(origin)'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들이 해온 것을 재빨리 따라잡는 전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origin)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어려운 화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저자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고통'이다. 고통을 모르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경희의 스팀청소기는 물걸레질을 해야 하는 주부들의 아픔을 보았기에 창조되었다. 엘지의 메카폰은 하루 다섯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하는 무슬림의 고민을 보았기에 창조되었다.

 셋째, 뒤집고 섞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창의력이란 여러 가치를 연결하는 능력이다. 일본 아오모리 현의 한 농부는 태풍 때문에 과수원의 사과가 대부분 떨어져 낙담하고 있던 중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보고 '합격 사과'란 이름을 붙여 열 배 가격으로 팔았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떨어진 사과 대신 거센 비바람을 견딘 사과를 본 것, 그 사과를 합격과 연결 지은 것, 이것이 창조다. 이렇듯 창조를 위한 영감은 한 세계와 다른 세계의 교차점에서 나온다.

 둘째, 창조의 목적지인 새로운 시·공간을 선사해야 한다. 창조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시도를 통해 얻어진다. 벨기에에는 지상 25m 상공에 크레인과 와이어에 의지해 대롱대롱 매달린 공중 레스토랑이 있다. 피아노 연주도 들을 수 있다. 정원은 22명이 고 한 끼 식사비가 770만원이나 하는데, 1년 예약이다 할 정도로 문전성시다.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었기에 가능해진 것.

 넷째, 콘셉트다. 콘셉트가 없다면 창조도 없다. "우리는 신발을 파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판다." 나이키의 콘셉트다. 그 어떤 신발 장수도 '승리'라는 고객가치를 팔지는 않았다. 남들이 쓰지 않던 승리라는 화두를 개념으로써 나이키는 새로운 개념의 신발을 만들 수 있었다.

 다섯째, 예상을 깨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하고, 다른 분야를 기웃거리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익숙한 길을 버리고, 관심을 바꿔야 한다. 그럴 때 새로운 창조의 시상이 떠오르게 된다.

이 여름, 당신도 잠들어 있는 나만의 '오리진'을 깨워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보면 어떨까. 창조의 힘이 이끄는 새로운 삶의 감동을 당신도 맛보시길.



키네틱아트스

작품에 움직임을 더한 예술을 만나다.
움직이는 거대 생명체, 해변동물 그리고 물·바람·환경 이야기

2010 테오안센展

현존하는 키네틱 아트의 거장 테오안센의 작품을 한자리에
움직이는 거대 생명체, 해변동물 그리고 물·바람·환경 이야기

세계최고의 키네틱(KINETIC) 아티스트이자 살아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테오안센(Theo Jansen)의 전시회가 6월 12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1948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작은 해변마을인 스페베닝겐에서 태어난 테오안센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1957년 돌연 화가로 전향해 "Painting Machine"을 개발했다. 그 후 "Flying Drill" 등의 작품을 만들어 키네틱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에 주력해 오다 1990년부터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또한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인 '해변동물(Strandbeest)' 시리즈를 창조해 전 세계적으로 그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예술과
공학 사이에 있는
장벽은
우리 마음에서만
존재한다



그의 작품들의 이름에는 모두 Animari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Animaris는 라틴어로 Ani(동물)과 maris(바다)의 합성어다. 이를 통해 테오안센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해변동물들은 뼈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튜브와 나일론 끈, 고무링 등과 해변동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인 바람을 저장할 수 있는 빈 페트병



이 재료의 전부다. 테오안센은이러한 친환경적인 작업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제정한 에코 아트 어워드(Eco Art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플라스틱을 이용하지만 바람을 동력으로 이용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테오안센의 최초 작품인 아니마리스 불가리스(Animaris Vulgaris)를 비롯해 BMW 광고에 등장했던 아니마리스 오르디스(Animaris Ordus)와 최신작인 아니마리스 우메루스(Animaris Umerus) 등 총 18개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장은 작품전시관과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로봇공학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기간 2010.6.12~10.17(매주 월요일 휴관)
장 소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관 및 과학조각공원
관람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8시30분
관람료 1.테오안센展-대인13,000원/학생8,000원
2.테오안센展+국립과천과학관 통합관-대인15,000원/학생8,500원
문의 1566-0329 |홈페이지 www.theojansen.co.kr

조금만 신경쓰면 확 달라질다!

생활 속 관리법으로 무더운 여름 내 건강을 지키자!

여름철 피로 이기기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여름에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나른해지기 쉽다. 신체 활동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단백질·비타민·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의 체내 요구량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

하면 영양 불균형으로 만성피로·졸음·식욕부진·소화불량·현기증 증세가 나타나게 되므로,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리고 여름을 많이 타는 사람은 생맥산이 좋는데 맥문동·오미자·인삼에 물을 두 대접 붓고 한 시간 정도 달여서 차게 해서 마시면 효과가 좋다. 여름에는 소화기에 탈이 많이 나므로 과식

하지 말고 기름진 음식 및 자극적인 음식물은 되도록 삼가고, 찬 음식보다는 항상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오전에 업무량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아침을 충분히 먹어 오전 시간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고, 점심식사 때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맨손체조·스트레칭·산책 등 가벼운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더욱 좋다.



에민해진 여름피부, 원인별 대처법

피부트러블의 주범, 자외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덥고 번들거린다고 맨 얼굴로 외출하는 것은 절대 금물.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외출할 때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 철저하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SPF(Sun Protection Factor)수치는 실내에서는 SPF30 정도,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SPF4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주면 좀 더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기능뿐 아니라 수분유지 및 메이크업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효과도 있다.

피부가뭉의 원인, 에어컨
=철저한 수분관리가 중요

지하철과 버스, 회사, 학교 등에서 하루 종일 접하게 되는 에어컨 바람 역시 피부에는 치명적. 여름 내내 접하는 에어컨 바람은 공기를 차게 하는 동시에 습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따라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피부에 직접 쐬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루 종일 냉방을 하는 곳이라면 가습기를 이용해 건조해진 실내의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 또 물을 자주 마시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화장품을 발라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다.

땀과 피지
=비누 대신 클렌징 제품 사용

후덥지근한 날씨로 인해 과도하게 배출된 땀과 피지는 피부를 자극하고 모공을 넓게 만드는 것은 물론 여드름 등의 다양한 피부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땀과 피지를 깨끗이 씻어낸다고 알칼리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비누를 사용해 무리하게 자극하면 피부보호막까지 제거돼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부자극이 심한 여름엔 보습 및 진정 효과가 있는 클렌징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흘러내리는 땀으로 인해 끈적끈적해진 몸이 불쾌하다고 너무 자주 샤워를 하면 피부의 방어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샤워는 가능하면 하루 1회, 짧게 하고 하루에 여러 번 샤워할 경우에는 비누를 쓰지 않는 '물 샤워'가 바람직하다.

번호가 나오기까지
함께 하신 원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 SUMMER
V O L . 23

세 계 초 우 량
기 업 을 향 해 가 는
원 익 그 룹 원 익 인 이
함 께 하 는 사 보

(주) 원익	권윤정 유근식
--------	------------

(주) 원익퀵츠	도현수 김수연 김태훈 김덕수
----------	--------------------------

신원종합개발(주)	문성준 이윤정
-----------	------------

(주) 아이피에스	김병준 이민아 배중구
-----------	-------------------

(주) 아토	한마음 봉사단 유동석 한덕희
--------	-----------------------

(주) 원익머트리얼즈	개발팀 송민희 정항자 이성윤 이병섭
-------------	---------------------------------

(주) 위닉스	부품사업부 테락희 함지호 이태울 김정훈 정미란
---------	--

디비코(주)	김남수
--------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차은주 이필영
-------------	------------

기획조정실	김동철 박한새
-------	------------

RESULT YOU CAN SEE AND FEEL[®]



누구나 fractional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나 Fraxel[®]을 흉내낼 순 없습니다.

- Roller Tip이 Fraxel[®]의 기술을 말합니다.
 - Overlap없는 균일하고 안전한 시술
 - 굴곡진 부위의 효과적인 치료
 - Intelligent Optical Tracking[®] System(IOTS)에 의한 빠르고 안정적인 시술
- Fraxel[®]은 손상된 피부를 치료하여 젊었을 때의 피부 느낌을 되살려줍니다.
 - 좀 더 매끈하고 화사하게 보이는 피부
 - 좀 더 개선된 피부톤과 피부결
 - 눈주위 주름 개선
 - 여드름/수술 흉터 개선